

‘백신접종 순조’ 소비심리 살아나 집값·물가·금리 동반 상승 전망

한은, 6월 소비자동향조사

CCSI 110.3으로 6개월째 상승세
기대인플레이션 2.3%... 0.1%p 올라

소비심리가 완전히 살아났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다. 개선된 소비심리와 함께 집값은 물론 향후 물가와 금리도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3으로 전월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 여섯달 연속 상승세다. 반등폭도 더 확대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기준값 100보다 크



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예상보다 빠른 백신접종과 수출 호조 지속,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 회복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전월과 같은 수

준을 유지했으며, 6개월 뒤를 전망하는 생활형편전망CSI도 99로 2포인트 높아졌다. 가계수입전망은 100, 소비지출전망은 113으로 전월 대비 각각 2포인트, 5포인트 상승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94로 8포인트, 향후경기전망지수는 109로 10포인트나 뛰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물론 지수 자체도 기준치인 100을 크게 웃돌고 있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 시각이 우세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7로 전월 대비 1포인트, 금리수준전망지수 역시 124로 6포인트나 높아졌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노동계, 경영계에 선전포고

“생계보장 등 위해 인상 불가피”
경영계, 최초 요구안은 ‘미정’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800원, 월급 225만7200원.” 노동계가 먼저 선전포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안과 최저임금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추후 최초 요구안을 낼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00원, 월급 225만72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급은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를 환산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하며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은 30원 많은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8720원) 대비 23.9% 올린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높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2.9%, 올해 1.5%로 최저 수준에 그쳤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 생활 개선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경영자 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8720원으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4년간 온라인 풀필먼트에 1조 집중투자

>> 1면 ‘이베이 품은 신세계’서 계속

신세계 그룹은 이베이 인수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도적 사업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충성도 높은 이베이의 270만 유료고객과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셀러를 얻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극강의 온라인 기업’으로 완벽히 탈바꿈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국내 IT 전문가 확보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베이의 숙련된 IT 전문가를 얻게 돼 온라인 사업의 규모

와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신세계그룹이 국내 최고 유통기업으로서 쌓아온 오프라인 운영 노하우와 물류 역량을 이베이와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

장보기부터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종합플랫폼을 확고히 구축하고, 통합매입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져 ‘완성형 이커머스 모델’에 다가설 전망이다.

최첨단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SSG닷컴의 노하우를 바

탕으로 향후 4년간 1조원 이상을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에 집중 투자하고, 신세계그룹의 오프라인 거점을 온라인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해 물류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이는 당일배송 등을 통해 셀러 경쟁력 향상은 물론, 이베이의 대량 물량을 기반으로 센터 가동률을 높여 투자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그룹은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유통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수년 전부터 부동산 중심의 그룹 자산을 전략적으로 재배치, 투자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산의 디지털화’도 병행해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우조선, 기업결합 노조반대 거세

>> 1면 ‘후 이어 조선업계도’서 계속

르노삼성자동차는 올해 초 서바이벌 플랜을 통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노사 갈등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존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째 임단협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수노조가 재교섭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서다. 다만 기업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부담을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선업계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사 갈등으로 흥여를 잃고 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매각 반대 운동을 전개하

고 있어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2일 제94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6~9일 매일 8시간씩 전면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의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2019·202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지난 4월 총회에서 부결됐는데도 사측과의 교섭이 재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연일 수주 낭보를 전하며 순항하던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파업으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수주 목표 80% 이상을 달성했지만 노사 갈등으로 하반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노사 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르면 올해 말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을 앞두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